

[보도자료]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국립횡성숲체원 'CFS 숲' 조성 기념식수

2024. 7. 17.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임직원들이 16일 국립횡성숲체원의 'CFS 숲' 기념식수 앞에서 '와우 더 포레스트' 캠페인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CFS 임직원 40명, 강원도 국립횡성숲체원에서 '와우 더 포레스트' 캠페인 전개
- 국립횡성숲체원 일대 숲길 잡초 제거, 땅 고르기 등 숲 가꾸기 봉사활동 펼쳐

2024. 07. 17. 서울 -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CFS)가 지난 16일 강원도 국립횡성숲체원에서 'CFS 숲' 조성을 기념하는 식수 행사와 숲 가꾸기 봉사활동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활동은 CFS가 올해부터 추진한 '와우 더 포레스트' 캠페인의 일환으로 정종철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 40명이 함께 했다.

CFS는 올해 하반기에 국립횡성숲체원이 있는 강원도 둔내면 청태산로 일대에 CFS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CFS 임직원들은 이날 'CFS숲'이 될 부지를 정비하고 주목나무를 기념으로 심었다. 주목나무는 병충해에 강하고, 계절에 상관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나무로 유명하다. 이어서 국립횡성숲체원 숲길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땅 고르기를 하는 등 숲 가꾸기 봉사활동에 나섰다.



정종철(오른쪽 첫번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과 이수성(오른쪽 두번째) 국립횡성숲체원장이 지난 16일 CFS 직원들과 함께 국립횡성숲체원에서 'CFS 숲' 조성을 기념하는 나무를 심고 있다.

쿠팡 이천2센터 직원 민영주 씨는 “강원도 황성에 우리 회사 이름으로 된 숲이 생긴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다”라며 “울창한 ‘CFS 숲’을 만들기 위한 그 첫 번째 나무를 심어서 기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맨발로 숲을 거닐 수 있도록 숲길을 정비하는 봉사를 해서 더 뿌듯하다”고 말했다.

국립횡성숲체원 이수성 원장은 “나무와 숲을 가꾸기 위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사회공헌 활동이 숲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립횡성숲체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숲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임직원들이 16일 국립황성숲체원 일대 숲길에서 숲 가꾸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CFS는 지난 5월 나무 심기를 통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숲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산림청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CFS 임직원들은 지난 봄 식목일을 기념하여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늘목리 산에 낙엽송 3천 그루를 심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